

이슈 브리핑

● 친환경차 / 탄소중립

- (EV) Mercedes-Benz,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개발 취소
- (선박) 中 COSCO, 세계 최대 전기 컨테이너선 출시
- (충전) 美 내 전기차 충전기 파손 급증

● 자율주행 / SW / 미래모빌리티

- (자율주행) Baidu, 중국 우한에 3천만원대 로보택시 1,000대 배치 계획
- (자율주행) 일본, 자율주행차 사고 조사기관 설치 검토
- (자율주행) 영국, 자율주행차 법안 공식화

● 글로벌 주요 부품사 동향

- (Denso) 보유 중인 Renesas 주식 일부 매각 발표
- (Continental) 타이어 공장에 탄소중립 생산 공정 도입
- (Vitesco-Honda) 수소연료전지차용 전기 구동 시스템 공급

친환경차 / 탄소중립

◆ (EV) Mercedes-Benz,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개발 취소

- 獨 언론 Handelsblatt에 따르면 Mercedes-Benz는 EQE·EQS 후속 모델용 차세대 플랫폼 'MB.EA Large'의 개발을 철회했는데, 현세대 모델들의 판매 부진이 주 원인
 - * '24년 1분기 Mercedes-Benz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(8,336대)은 전년 동기 대비 4.5% 감소
-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사는 '28년 출시 예정이었던 이번 플랫폼의 개발 철회로 최대 \$65억(약 8.9조원)의 비용 절감 예상
 - * 한편 차세대 EQC 및 SUV에 탑재될 플랫폼인 'MB.EA Medium'의 경우 개발이 진행 중
 - ※ Inside EVs('24.5.15.) <https://insideevs.com/news/719738/mercedes-benz-cancels-next-large-ev-platform-eqs-eqe-report/>

◆ (선박) 中 COSCO, 세계 최대 전기 컨테이너선 출시

- 中 국유 해운사인 COSCO는 최근 1만톤 이상급(700 TEU) 컨테이너선 'Green Water 01'을 출시하였는데 당사에 따르면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100% 전기 추진 컨테이너선
- 선박은 1,600kWh급 배터리 컨테이너들로 구성된 대용량 배터리(50,000kWh 이상)를 탑재했는데 해당 컨테이너를 추가하여 운항 거리를 연장할 수 있으며(최대 80,000kWh), 또한 전기 추진으로 100 해리(185.2km)당 연료 3,900kg과 탄소 12.4톤 저감 가능
 - * 해당 선박은 현재 난징과 상하이간 물류 운송에 활용 중
 - ※ Al Circle('24.5.6.) <https://www.alcircle.com/news/cosco-shipping-s-green-water-01-redefines-maritime-sustainability-standards-110764>

◆ (충전) 美 내 전기차 충전기 파손 급증

- 현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'24년 들어 고속 및 급속 충전기의 파손이 급증하는 중으로, 케이블 내 구리 절도를 목적으로 한 파손이 다수
 - * 관계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시의 경우 시내 고속 및 급속 충전기 88개 중 50~60개 가량이 파손되었으며, 일부는 수차례의 피해를 입기도 함
- 충전기 대부분이 공원·쇼핑몰 등과 같이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했는데 밤에는 인적이 드물어 사실상 방치되는 것이 원인으로 관계자들은 가로등·카메라·철제 캐비닛* 등을 설치하여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
 - * 프레스노시는 \$17.6만(약 2.4억원)가량을 들여 충전기마다 보호용 캐비닛을 설치하고 있으며 밤에는 자물쇠를 잠궈 충전기를 보호할 계획
 - ※ Inside EVs('24.5.16.) <https://insideevs.com/news/719834/tesla-supercharger-copper-cables-vandalized/>

◆ (자율주행) Baidu, 중국 우한에 3천만원대 로보택시 1,000대 배치 계획

- Baidu Apollo는 중국 우한에 20만 위안(3,751만원)의 새로운 6세대* 로보택시 1,000대를 배치하고 차량 운영·관리 전반을 자동화** 할 계획
 - * JMC와 공동 개발한 6세대는 BAIC과 공동 개발한 5세대(48만 위안)의 절반 미만 가격으로, 핸들·페달 유지 및 새로운 Apollo 자율주행 파운데이션 모델 탑재
 - ** 로보택시 차량은 배터리 자동 스와핑을 통해 충전하며, 앞으로 차량 배치, 회수, 청소 등도 자동화 예정
- 동사에 따르면 '24년 초까지 매출 9배 증가, 손실은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, '24년 말 손익분기점을 넘기고, '25년 흑자 전환이 목표라고 밝힘
 - * 동사는 '21년 베이징에서 첫 자율주행 로보택시 상업 서비스를 시작해 중국 내 10개 도시로 확장되었으며, '24.3월 우한에서 중국 최초로 24시간 로보택시 서비스 시작
 - ** Baidu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'23.Q4 동안 로보택시 약 84만 건 운행
 - ※ Forbes('24.5.14.) <https://www.forbes.com/sites/bradtempleton/2024/05/14/baidu-launches-new-28000-robotaxi-in-wuhan/?sh=3575abbc5311>
 - ※ CNEVPost('24.5.15.) <https://cnevpost.com/2024/05/15/baidu-apollo-launches-6th-gen-robotaxi/>

◆ (자율주행) 일본, 자율주행차 사고 조사기관 설치 검토

- 일본 정부는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한 사업자 위축을 피하기 위하여, '24.6월 사고 조사 및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, 이후 사고 조사를 위한 독립적 공공기관 세부사항 검토 계획
 - * 자율주행차 운행 도로 기상 조건, 차량 안전 기준, SW/HW 기준 등을 모두 충족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기관 보고를 근거로 하며, 위 조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위적 실수가 있을 경우 법적 대응은 원칙적으로 현행제도와 다르지 않음
- Lv.4~5 무인 자율주행 사고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하며, 조사기관 보고는 수사당국, 법원에서 활용하고, 자율주행차 사업자는 데이터 제공 등 조사 협조 의무화 예정
 - * Nikkei는 일본 자율주행 Lv.4 차량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을 2030~2040년대로 예측함
 - ※ Nikkei('24.5.21.) <https://www.nikkei.com/article/DGXZQOUA204KY0Q4A520C2000000/>

◆ (자율주행) 영국, 자율주행차 법안 공식화

- 영국에서 자율주행차 법안이 공식화되면서 '26년부터 자율주행차 도로 운행이 가능
 - * 영국 정부는 기존에도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조건부 허가하고 있으며,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국 자율주행 SW 기업 Wayve, Oxa가 런던, 옥스퍼드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 주행 중임
- 법안의 핵심은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가 보험사, SW 개발자, 자동차 제조사와 같은 허가된 자율주행 기업(Authorized Self-Driving Entity)에 있다는 것임
 - * 또한 정부는 완전 독립적 사고 조사 기능을 갖춘 차량 승인 시스템 구축 예정
 - ※ Gov.UK('24.5.20.) <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news/self-driving-vehicles-set-to-be-on-roads-by-2026-as-automated-vehicles-act-becomes-law>

◆ (Denso) 보유 중인 Renesas 주식 일부 매각 발표

- Denso는 Renesas에 출자해('13년) 지분율을 높이면서('18년) 반도체 조달 및 공동개발을 진행해왔으나, 보유 주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전동화 등 성장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Renesas 주식 일부를 매각한다고 밝힘
- '24.3월 말 기준 Denso는 Renesas의 자사주를 제외한 발행주식수의 8.6%를 보유하며, 4.4%(7,812만 7,800주)에 해당하는 지분의 절반 이상을 매각하는데, '24.5.20일 증가로 산출한 매각액은 약 2,100억 엔임
 - * 동사는 '24.5.23일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각해, 투자유가증권 매각액 약 1,755억 엔 예상
 - ※ Nikkei('24.5.20.) <https://www.nikkei.com/article/DGXZQOQFD206T60Q4A520C20000000/>

◆ (Continental) 타이어 공장에 탄소중립 생산 공정 도입

- Continental은 포르투갈 루사도 공장*에서 자체 발전한 태양광 전기와 그 외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증기보일러**로 타이어 생산을 시작했으며, '40년까지 모든 자사 타이어 공장을 탄소중립 생산 공정으로 전환할 계획임
 - * 연간 1,800만 개 이상의 타이어 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공장
 - ** 뜨거운 증기로 타이어를 가황하여 고무의 탄성을 높이는데, 전기증기보일러가 거의 손실 없이 전기를 증기로 변환
 - *** 친환경에너지 가용성 및 환경 요인 변동 대응을 위해, 전기증기보일러와 함께 기존 천연가스보일러 사용 가능
- 동사의 타이어 사업부는 '23년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50GWh 절감
 - * 효율적인 전기보일러, 단열재, LED 조명으로 교체 등과 같은 방법으로, 12,500개 단독가구의 연평균 전력 공급량과 비슷한 수준을 절약함
 - ※ Continental('24.5.16.) <https://www.continental.com/en/press/press-releases/20240516-neutral-production/>

◆ (Vitesco-Honda) 수소연료전지차용 전기 구동 시스템 공급

- Vitesco는 '24년 말 미국, 일본에서 출시 예정인 Honda의 수소연료전지차(FCEV) 'CR-V'에 감속기 없이 전기모터 및 파워 일렉트로닉스가 통합된 3세대 액슬 드라이브*와 연료전지스택 공기차단밸브**를 공급한다고 발표
 - * EMR3(Electronics Motor Reducer, 3rd Generation) integrated axle drive: 최대 3개의 전기모터, 파워 일렉트로닉스, 감속기로 구성된 드라이브 시스템을 통합한 플랫폼으로, Honda 공급용 제품은 중국 톈진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됨
 - ** 수소연료전지차의 연료전지스택으로 공기 출입을 제어하여 연료전지의 내구성을 높이는 장치
 - ※ Vitesco('24.5.20.) <https://www.vitesco-technologies.com/en-us/press-events/press/24-05-22>